

우리나라 면방직업의 발자취 - 08

- 목화 전래로부터 8·15 해방까지 -

6. 일제시대의 면방직업

6.5 일제의 섬유기술교육

한편 우리의 방직공업을 위한 기술교육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동숭도영 자리하고 있던 중앙시험소 안에 공업전습소가 한일합방의 전해인 1909년에 설치되면서 영직과에서 1922년까지 14년간에 242명에게 영직기술을 가르쳐 사회에 배출하였다.

공업전습소가 1923년 경성공업학교로 발전하면서 기직과를 두고 구제 3년, 신제 5년의 수업년한으로 118명을 배출하였다. 1941년 경성공립공업학교로 발전하면서 지금의 대방동에 있는 서울공업고등학교 자리로 옮기게 되었다.

경성공립고업학교는 5년간에 83명을 배출하였다. 정식 공업학교에서 5년수업으로 모두 201명을 배출하였는데, 이중 일본인은 86명으로 43%가 되며 우리나라 사람은 23년간에 115명의 기직기능자를 양성한 결과가 된다 .

이와 함께 1918년 경성공업전문학교를 동숭동의 중앙시험소내에 설립하고, 경성공립공업학교가 대방동으로 분리되어 나갈때까지 중앙시험소 안에 공업전습소 또는 경성공업학교가 한 울타리 안에 공존하면서 시험소의 기술자나 전습소나 공업학교, 공업전문학교의 강의까지 맡고 있었다. 경성공업전문학교는 3년제로서 경성고등공업학교, 다시 경성공업전문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가며 1918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동숭동에서 28년간 28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들 졸업생중 192명이 일본인으로서 67%를 차지하고 한국인은 100명도 안되는 93명에 불과하다. 수준이 낮은 기능자를 양

성하는 공업학교에서는 졸업생 중 한국인이 반수를 약간 넘고 있으나 기술자를 양성하는 전문학교에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많지도 않으면서 학생수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니 일본사람을 위한 학교에 한국사람이 끼어 있는 결과가 되는 것 같다. 따라서 학교의 교풍도 완전히 일본식이었으며, 일본인의 횡포도 끊이지 않아 가끔 마찰이 표면화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었으므로 한국학생들은 극히 우수한 사람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수재들이었다. 졸업후의 진로를 보면 매년 1~2명씩 경성방직에 채용되어 학교에서 배운 섬유기술을 살리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보겠다. 일부는 도, 군, 면의 산업기술로서 섬유와 관련된 지방행정을 담당하기도 하고, 산업조합에서 직물의 검사를 맡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중소공장, 자영공장에서 활동하거나 중학교에서 수리과목의 교편을 잡는 사람도 있었다. 간혹 일본인 공장에 채용된 기술자도 있으나 극히 적어 1~2명 있을까 할 정도였고,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여도 일본인은 기본봉급에 50~60%가 되는 가봉을 더 받고 있었다. 예컨대 그 무렵 도시의 한국인 잡역이든, 봉급자이든 모두 격차를 두고 있었다. 일본의 거대한 방직공장이 이곳으로 이전해 왔다고는 하지만, 여공이나 기능직은 거의 전원 한국인을 채용하여 그만큼 고용효과가 있었겠으나 고급기술직이나 관리직원은 전원 일본인이 독점하고 기술의 전수를 기피하며 한국인을 차별대우 하였다.

6.6 일제시대 면방직공업의 특성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 36년간의 면방직공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서 자국의 부족한 자원을 확보, 보강하면서 생산제품 시장으로 독점하여 보다 많은 수탈을 감행했다고 할 수 있다.

원면 증산을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합방 초기에는 거대한 조면공

장에 투자하고 값싼 원면을 확보하였으며, 일제시대 후반에 가서는 일본의 면방공업이 방대한 규모로 발전하여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원면량은 일본의 사용량에서 접하는 비중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언젠든 단시일내에 값싸게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의 경우의 위기대비적 또는 탄력적 이점도 있어 시종일관 면화증산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면서 함방 이전부터 장악한 우리나라의 면제품시장을 독점하여 일본제 면사, 면직물을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려오던중, 1930년대부터의 중국, 동남아 침략이 시작되자 군사적인 병참기지화 뿐만 아니라 산업의 대륙진출기지화를 위하여 일본의 거대 면방직공장들이 우리나라 경향 각지로의 공장 신설, 이설 또는 증설을 계속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값싸고 풍부한 공장부지, 원면, 노동력, 전력, 용수뿐만 아니라 총독부의 자유롭고 유리한 지원책 등 좋은 경영조건 속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려 방적의 황금여장이 되었다.

그러면서 일제는 우리의 민족자본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성장, 발전하는 것을 억제하고 우리의 자주적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일본의 거대한 공장들이 이땅에 많이 건설되어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제품이 생산 공급되어 마치 우리의 산업이 발전을 이룩한 듯 보였지만, 이들은 완전히 일본인의 자본, 기술, 경영으로 운용된 공장들으로써 높은 수익이 이땅에 축적,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건설이나 원료에서 제품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더 많은 이윤을 챙길 수 있었으며, 비록 생산시설은 이땅에 남았지만 기형적인 식민지 경제구조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표 30> 8.15 당시의 공장별 시설상황

공 장 별	설 치 시 설		미 설 치 시 설	
	방 기(추)	직 기(대)	방 기(추)	직 기(대)
가네가후찌 방직(광주)	35,104	1,440	3,264	70
가네가후찌 방직(경성)	48,320	1,525	1,400	-
도오요 방직(인천)	35,088	1,292	-	-
도오요 방직(경성)	45,328	1,440	-	231
조선방직(부산)	40,000	1,264	10,304	49
경성방직(경성)	25,600	896	4,600	-
다이와 방직(창동)	-	150	-	-
조선 면화(목포)	-	86	-	-
송고실업(개성)	-	130	-	-
다이닛뽕(경성)	-	417	-	-
조선제마(인천)	4,480	-	-	-
군제방직(대구)	19,928	-	15,672	408
소 계	253,848	8,640	35,240	758
소속 불명확	-	-	48,224	211
합 계	235,848	8,640	83,464	969

[주] (1) 이 표에서 미설치시설이라 함은 설치중에 있는 설비도 포함됨

(2) 군제방직 대구공장의 설비는 해방 직후 화재로 전소되었음

이러한 여건 속에서 유달리 경성방직은 이 땅의 총 면방추수중 불과 10%였지만 많은 난관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민족자본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기술로 우리들이 입을 면사, 면직물을 생산하며 일본의 거대한 방직공장들과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발전해 왔으며, 일제 말기에는 남만방적 까지 만주땅에 건설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자 자랑이 아닐 수 없었다.

한편 농촌의 부업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수공업적 면직물업이나 합방이전 부터 서울등 도시에서 급속히 발전한 영세 직물공장들은 일제의 유화 정책에 따른 소규모 장려액으로 원시적인 기술수준은 면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대부분은 전업적 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일본기업이나 일본제품에 눌러 불황이 닥쳐오면 폐업하는 등 서서히 쇠퇴해 갔다.

8.15해장을 맞고 보니, 일본인이 전원 철수하자 그간 원활히 잘 돌아가던 면방업이 일시에 완전히 혼미상태에 빠져들었다. 비록 일본인들이 그들의 공장시설을 고스란히 그대로 남겨놓고 떠났다고는 하나 경영, 기술, 기자재 등이 공백상태가 되었고, 조직, 기구, 유통 등이 와해되고 말았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정책으로 일본이 점하고 있던 기능이 일시에 떨어져 나감으로써 우리의 면방직업은 경성방을 제외하고, 이땅의 9할(방적추수 기준)이나 되는 일본계 방직공장들이 허탈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로서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으로 인하여 우리의 면방직공업이 얼마나 파행적구조를 이루고 있었는가가 확실히 입증되었다고 보겠다.